

대한민국 해외투자 선구자들의 초국적 연계성과 의식세계: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가 회고록 분석*

서 지 원**·전 제 성***

요약

이 논문은 한국의 해외투자 선구자였던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가들의 전기형식의 저작들을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초국적 연계성과 의식세계를 분석한다. 주요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코데코(한국남방개발)의 최계월이 남긴 대필 서적과 기사들이며, 이 외에 1960년대 또는 197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사업에 종사했던 세 명의 사업가들이 남긴 기록이 경험의 유사성을 찾기 위해 병치되어 활용될 것이다. 이들이 남긴 기록은 그들 개개인이 가졌던 일본과의 연계 및 한국·현지에서 확보한 유력자의 후원으로 인해 초기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많은 경우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사업의 성쇠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인, 그리고 기업형 타운과 ‘코리언의 아이들’ 등 그들이 인도네시아에 남긴 유산에 대한 시각에서는 민족주의와 아시아주의, 인종주의, 가부장제의 흥미로운 혼합이 발견된다.

주제어: 최계월, 코데코, 산림개발, 해외투자, 인도네시아

* 이 논문은 2015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suhjiwon@gmail.com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jjeseong@gmail.com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11월 27일, 한국남방개발(현지법인명 Kodeco: Korea Development Company, 이하 코데코)의 최계월 회장이 사망하였다. 그는 1968년에 인도네시아 칼리만탄(Kalimantan)에서 벌목사업을 시작한 이래 유전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에 도전한 선구적 투자자였으나, ‘해외 투자 선구자’ 세대를 대표하는 이 인물의 이력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그와 함께 해외투자 선구자 대열에 자리했던 다른 기업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의 시선에서 소외되어 있다.

학술연구는 부재하지만 최계월을 비롯한 몇몇 해외투자 선구자들은 전기 또는 회고록 형식의 단행본들을 남겼다. 일찍이 최계월의 회고록에 학술적 관심을 두었던 학자는 인도네시아 산림을 연구하는 쩡(Tsing 2008)으로서, 그는 한국인 조력자를 통하여 코데코의 사업 방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간파에도 불구하고 그의 코데코 사례 연구는 한국어로 나와 있는 여러 자료 중 한 가지(권태하 1994a; 1994b)만을 이용하여 노동관계라는 한 측면을 분석하는 데에 그쳤다. 따라서 한국인 해외투자 선구자들의 저술들은 여전히 미진한 분석 대상으로 남아있다.

이 논문은 해외투자 선구자들의 전기적 단행본들을 통하여 진출 및 성쇠의 투자과정을 정리하고, 활용된 네트워크, 인도네시아에 관한 시각, 그들이 남긴 유산에 초점을 둔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및 한인사회 연구의 공백을 채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한인사회에 관한 개관적인 연구(전제성·유완포 2013)나 주요 기업들에 관한 사례연구 모음집(오명석 2014)이 출판된 바 있으나, 투자 첫 세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의식세계에 대한 분석은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투자 첫 세대가 구사

했던 사업 방식과 인식은 그들의 생애와 함께 과거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후속세대 한인투자자들에게 의식적 유산으로 남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리라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적 의미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계급형성 연구의 주인공은 노동계급으로 간주되지만(카츠넬슨 1986) 그 상대방으로서 상호작용의 주체인 자본계급 형성에 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며, 중간계급의 희망과 가치관(스콧 2014)도 차별 없이 연구되어야 한다. 해외투자 한인자본가 계급형성 연구는 한인회나 한인상공회의소의 결성과 발전 같은 조직적 형성과 집단행동(전제성 2010)뿐만 아니라 의식의 형성까지 분석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상(韓商)이라고 불리는 해외투자 한인기업가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연구에 기여하는 가치도 지닌다. 사업의 구상, 실현, 발전과 위기에 영향을 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인도네시아 연구, 나아가 동남아 연구의 경우에 화인(華人)기업 사례연구에 집중되었다(김상 2002; Chua 2008). 화인사업가들의 역사나 규모 면에서 볼 때 화인에 집중된 연구 경향은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비교우위도 있는 한상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연구의 희소성은 아쉬운 공백이라 할 수 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영업 비밀인 경우가 많아 내밀한 자료 접근이 어려운 연구주제에 속하는데, 기업가들의 자전적 기록들이 대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는 저술들에서 드러나는 민족주의와 초국적 관계망, 현지인에 대한 시각 등은 훗날 더 방대한 해외 한인자본가 계급의식 형성의 경험적 구성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기(傳記) 형식을 띤 단행본 등 어느 정도 본인의 행적에 대한 공적인 자료를 남긴 인도네시아 초기 진출 기업인들의 자전적 기록 또는 회고록으로 하였다. 1967년부터 1986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가 전부 10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시기에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흔치 않았다. 10건 중에는 미원그룹의 현지공장(전제성 2014)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건설 부문의 1건과 금속 부문의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건이 모두 산림 개발이었을 정도로 이들 한인 기업의 해외투자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Lee 1997).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룬 기업들은 한국에 ‘모기업’을 갖고 있지 않아 ‘한국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보다는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엄은희 2014) 또는 ‘한인기업’으로 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공통점 또한 가지고 있다.

초기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인들 중 단행본 1권 이상 분량의 회고록을 남긴 인물로는 최계월과 신교환 2인을 들 수 있다. 차칭 대한민국 해외투자 제1호 기업인이라고 하는 최계월은 한국남방개발 즉 코데코(Kodeco) 그룹을 설립하고 키워낸 장본인으로서 남부칼리만탄에서의 원목사업으로 시작하여 원유, 시멘트, 농업 등 여러 분야의 자원개발 및 가공사업에 투자해 왔다. 그의 자전적 기록은 주로 전문 작가를 고용하여 펴낸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다. 『낭만의 제국』(이호 1993),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권태하 1994a; 1994b), 『나는 아스팔트 깔린 길은 가지 않는다』(이호 2012) 등이 이와 같은 형식의 단행본이다. 권태하(1994a; 1994b)의 책은 최계월의 지시에 따라 그가 구술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이 책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1인칭 자료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한니홍업을 창업하

며 원목사업을 시작한 신교환은 본인의 경험담을 직접 집필한 자전적 수기 『젊은이여 세계로 웅비하라: 나의 동남아 40년 개척사』(2007)를 펴낸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계월과 신교환이 남긴 단행본을 주요 연구 자료로 삼되 이들을 비롯한 초기 진출 기업인들에 대한 각종 언론기사 등을 참조할 것이다. 특히 현재 인도네시아 내의 한인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코린도(Korindo) 사의 경우 승은호 회장이 단행본 형식의 자전적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월간지와 단행본 기사(이상락 2000; 이상락 2007; 한명규 2003), 학술 연구(엄은희 2014) 등을 이용하여 보조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식품유통업으로 성공한 김우재 회장이 집필한 수기 『인도네시아에 핀 무궁화』(2009) 역시 그가 1970년대에 원목사업의 관리직으로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했음을 감안하여 역시 보조적인 연구 자료에 포함했다.

흔히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는, 1인칭 관점에서 작성된 주관적 자료 역시 ‘부분적인 조건부의 진실들’을 통해 지식 축적에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다(Rudolph and Rudolph 2003). 이 연구에서 다루는 초기 기업인들의 회고록 및 취재 기사들은 그들의 경험과 관점에 대해 그들만이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기에 귀중한 자료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료들은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의 회고록에 드러난 경험과 관점이 어떠한 맥락에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회고의 주체는 초기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기업가들로, 이들은 1906년에서 1943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들이다. 또한 취재기사에는 기업가들 본인 이외에 취재에 응한 한국인 직원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기업의 초기 역사를 겪은 상당한 연배의 임

원급 남성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개자의 문제이다. 회고의 주체가 직접 저자로 나선 회고록의 경우 문제가 덜하지만, 코데코 최계월 회장의 회고록과 코데코, 코린도를 다룬 기사의 저자들은 코데코의 직원이었던 권태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인터뷰와 구술에 의존하여 자료를 작성했으며, 이들이 가진 지식과 관점의 한계가 결과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들 자료는 저마다 일정한 독자층을 상정하고 저술되었다. 신교환(2007)과 김우재(2009)의 경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신교환의 회고록은 인도네시아의 교민신문에 연재된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독자층이 더욱 한정적이다. 한편 최계월의 회고록, 특히 1990년대의 단행본들은 코데코에너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이 임박하고 마두라 유전 사업이 ‘5공비리’의 일환으로 거론되던 시기에 기획된 것으로, 한국의 여론을 향해 코데코의 업적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최계월의 회고록 및 코데코와 코린도를 다룬 기사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한국의 일반 독자층을 겨냥한 것이다. 최계월은 5·16 민족상의 시상식 축하연에서 보르네오 정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청을 받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마트라에서 본 악어를 보르네오에다 잠시 옮겨다” 놓으면서 “능청을 떨었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권태하 1994a, 44-45),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자료들에 또 다른 ‘보르네오의 악어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

1) ‘보르네오의 악어’는 이중적 의미에서 흥미로운 표현이다. 첫째는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수마트라의 부분적 경험과 보르네오의 부분적 경험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현지 지식 전달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보르네오에 악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오류를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현지에 대하여 우리는 부분적인 사실만을 경험하고 인지한다는 겸손한 태도가 절실함을 알려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회고록의 과장 또는 오류에 대하여 다른 자료와의

Ⅲ. 한인 기업의 진출에서 유산까지: 회고의 내용

본 절에서는 초기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가들의 회고를 인도네시아 진출, 사업의 발전과 위기, 사업가들이 본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인,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까지 네 가지 항목으로 추려 분석한다.

1. 진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초기의 한국 기업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본에서의 인맥을 사업의 시작과 발전 과정에서 공통적인 배경으로 갖고 있었으며, 한국 정부 고위층과의 인연 역시 긍정적인 방향이든 아니면 그 반대이든 간에 사업 초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남방개발(코데코)의 설립자인 최계월은 소학교부터 일본에서 다닌 재일교포로서,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 40대가 된 1960년대에야 인도네시아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의 일본인 부인은 계속 일본에서 생활했고, 최계월도 한 해를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지에서 나누어 보냈으며(한대희 1986)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로 호텔 생활을 했다고 묘사된 것으로 미루어 한국에 근거지를 두고 정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가 2015년 말 96세의 나이로 눈을 감은 곳도 일본이었으며, 빈소는 도쿄의 쓰키지 혼간지라는 절에 차려졌다.

최계월은 1919년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에서 태어났다. 호적상의 이름은 한래(翰來)였으나 소년 시절 오마치 게이게쓰라는 일본의 문인을 흠모하여 창씨개명을 하면서 이름을 ‘게이게쓰’ 즉 계월(桂月)로 바꾼다. 어린 시절 한약방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합천으로 이사했으며, 최계월이 합천보통학교 4학년에 다니던 중 히로시마로 다시

대조가 가능한 경우에는 밝히려고 노력했다.

이주했다(한대희 1986, 251). 합천 출신의 윤상백이라는 인물이 히로시마에서 토목사업으로 성공하면서 고향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는데, 윤상백이 최계월 아버지의 고종사촌이었기에 그의 가족 역시 히로시마행을 택했다고 한다(권태하 1994a, 82). 이후 최계월은 히로시마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도쿄 와세다 제1고등학교를 거쳐 와세다대학 법문학부에서 수학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다.

해방 직후 최계월은 한국을 들락거리며 진로를 모색하기도 했으나 결국 일본에서 동양무역이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야쿠자의 세계에도 입문한다. 최계월의 회고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사업에는 와세다대학 시절의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초창기의 동양무역은 맥아더 사령부에 근무하는 최계월의 선배 마쓰모토를 통해 섬유 수입 쿼터를 배정받아 일본 회사에 중개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장사’(한대희 1986, 256)를 했으며, 실물을 거래하는 회사는 아니었다. 이후 또 다른 와세다 동창을 통해 일본 귀국동포원호회라는 민간단체를 소개받았는데, 이 단체의 총재대행을 맡은 다카모토 데루미치는 최계월에게 면포 쿼터를 더욱 많이 불하해 주었을 뿐더러 사령부와 함께 섬유사업 이권이 없어진 이후에도 다카모토가 고철 불하 등의 이권을 주어 동양무역은 계속 번창했다.²⁾ 최계월에 따르면 이 다카모토가 야쿠자 중종의 총보스가 되면서 자신 역시 야쿠자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권태하 1994a).³⁾ 이후 최계월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민당의 주

2) 훗날 최계월이 다카모토에게 자신에게 이권을 챙겨 준 이유를 묻자 그는 “내 생전 당신같은 미남은 그때 처음 봤어. 키가 후리후리하고 가슴이 떠억 벌어진 게.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 완전히 반해 버린 거야. 그땐 정말로 무엇이든 내가 가진 걸 당신한테 다 주고 싶은 심정이었어”(권태하 1994a, 180)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둘은 서로를 ‘다카짱’과 ‘미짱’이라고 부르는 사이였으며, 다카모토는 “최계월에게 언제나 친형제처럼 다정했고 내 것 내 것 구분없이 30년을 함께한 참친구”(권태하 1994a, 183)였다.

3) 같은 회고에 의하면 해방 이후 사업을 하며 만든 조선인 인맥 역시 야쿠자 입문에 중

요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카모토 나옴치라는 인물을 후견인으로 삼는 등 “일본 정치인 90%까지 사귄”(한대희 1986, 263) 정도로 인맥을 넓혀 갔다.

그렇다면 재일교포 사업가 최계월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최계월 자신의 주장은 ‘서이리안 추장 연계설’로서, 서이리안의 ‘추장’ 3인방과 관련된 이야기는 최계월의 모든 회고에서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출현한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민족의 운명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서이리안의 대추장 3인은 널리 알려진 일본의 지식인인 도야마 미쓰루의 자문을 얻고자 도일했는데 도야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였다. 이에 중의원 의장인 자민당 정치인 후나다가 이들을 최계월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최계월은 이들 ‘민족대표’ 또는 ‘독립지사’들의 호텔 생활을 2년간 도우며 이들을 설득시켜 “수카르노에 복종하도록 했으며 마침내 수카르노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어 그 때부터 수카르노와 가까워진 때문”(이호 1993, 17)으로 1962년 자카르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인도네시아에서 산림개발권을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설득시킨 논리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피부색이 흰색이고 이리안자야 사람들은 검은색이므로 아시아 나라인 인도네시아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권태하 1994b, 16-19).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에도 네덜란드령으로 남아 있던 서부 뉴기니의 인도네시아 합병은 낙하산 부대의 파견도 서슴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실력 행사, 그리고 미국 등 강대국과 유엔의 중재에 따른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1962년 뉴욕 협정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리안인(파푸아인)들의 의사는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⁴⁾ 따라서 3인의 추장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

요했다고 한다.

4) 1969년에 파푸아인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격의 ‘Act of Free Choice’

토를 수카르노에게 바치게 하여 인도네시아 ‘통일’에 기여했다는 최계월의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겠지만, 최계월이 일본 정계의 인맥을 통해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줄을 댈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면 나는 어떤 계기로 자원개발에 돌리게 됐는가. 그것은 내가 학창 시절부터 동경에 있었기 때문이다”(이호 1993, 14)라는 최계월의 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그가 재일교포가 아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일본을 통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은 “수카르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됐을 때…학병으로 인도네시아에 갔던 최 회장[최계월]이 교도소 간수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다는 설(최예나 2015),⁵⁾ 와세다대학 동창의 아버지인 야마나카 미네타로라는 인물이 일본 점령기 자바군 사령관이던 이마무라 히도시와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마무라를 통해 수카르노와 인연이 닿았다는 설(이호 2012, 111-112)⁶⁾ 등 최계월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설명하는 다른 가설에서도 변주, 반복된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홍아무역이라는 회사를 일본에 설립하기도 했던 최계월이 이 회사 대신 한국남방개발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한국에 설립했고 결국 한국 회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에

는 만장일치로 인도네시아에 통합할 것을 결의했지만 이것이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도네시아령 파푸아는 서이리안, 이리안 자야 등의 명칭으로 불리다 2000년대 들어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지역명이 ‘파푸아’로 개칭되었으며, 독립운동가들은 같은 지역을 ‘서파푸아’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자료에서 사용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 5) 최계월이 일본군 장교 시절에 수카르노 밑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고 국내 일간지가 보도하기도 했다고 한다(권태하 1994a). 이에 대해서는 최계월이 전쟁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6) 최계월의 동창 야마나카는 일본군으로 자카르타에 파견되었던 경험이 있고, 귀국 후에는 인도네시아와 거래를 하는 기노시타상사를 거쳐 최계월과 같이 홍아무역을 꾸렸다(권태하 1994a). 본 논문은 사업가 개개인에 초점을 둔 연구이므로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부간 밀접한 양자관계를 따로 상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수카르노 집권기의 일본 방문, 전후배상협정, 일본인 부인 데위(Ratna Sari Dewi), 일본의 인프라 건설 수주를 비롯한 경제적 진출 등에 관한 간략한 소개는 김문환의 글(2013, 84-88)을 참조하라.

착수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에 대해 최계월은 일차적으로 자원개발이라는 대형 사업을 조국의 이름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민족주의적 동기에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의 민족주의를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으나, 사업가가 오로지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회사의 국적까지 바꾸어가며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사업을 일구는 모험에 나선다는 설명은 그 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한국에서 새로이 개척한 인맥을 통해 사업에 대한 후원, 특히 투자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으리라는 그의 자신감이었을 텐데, 이는 5.16 쿠데타 이후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와 한일회담의 성공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었으며, 일본 정계의 인맥을 통해 한국 정권에 줄을 댈 수 있었던 최계월의 능력이 초기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최계월은 한국남방개발을 설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당시 정권 실세였던 김종필과의 인연으로 설명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일본은 평양에 플라스틱과 비닐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때 최계월 자신이 자민당 정치인 오노 반보쿠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막았고 이로 인해 주일 한국대표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한대희 1986, 271). 이후 이동원 외무장관이 방일했을 때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일본 유명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한일회담의 막후조정자’로 기능했으며, 결정적으로는 1962년 11월 외교관들의 부탁으로 도쿄에 잠시 머무르고 있던 김종필과 수카르노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한 후 김종필에게서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을 하려면 한국에 들어와서 하라”는 전갈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다(권태하 1994b, 42-45).

그러나 막상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1962년 12월에 ‘서이리안 대추장 3인’ 중 한 명인 ‘완마’라는 인물을 대동하고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면담하

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한국의 정치엘리트 동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김종필의 말 한 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없으며 김종필 자신도 정권 내에서 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권태하 1994b, 46-47). 최계월은 ‘국제사기꾼’이라는 호칭을 얻는 한편 국내에서 새로 벌인 사업도 실패해 호텔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궁한 지경에 빠졌으나(한대희 1986, 273) 우연히 실세인 이후락 비서실장과 연이 닿아 그를 통해 정책자금 300만 달러를 일차적으로 대출받는 데 성공했다. 이에 1968년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최종협정서를 체결하고 남부 칼리만탄의 임지 27만 헥타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⁷⁾

최계월이 일본에서의 인맥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최고위층에 연줄을 만들어 인도네시아 투자에 성공했다면, 정도는 덜하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다른 사업가들의 회고에서도 일본과의 인연 및 한국의 권력층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계월과 같은 시기 자카르타에서 목재업을 시작한 신교환도 도쿄제국대학에서 수학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신교환의 경우 울산에서 중등학교를 마치고 도쿄제국대학에서 수학하던 중 일본군 장교로 참전하게 되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아 일본 내에서의 인맥이 풍부한 것은 아니나, 유창한 일본어 실력과 도쿄제국대학을 다녔다는 학벌, 일본군 장교로 인도네시아에 근무하며 익힌 말레이어, 그리고 고향인 울산의

7) Tsing(2008)에 따르면 이 자금은 한일회담으로 확보한 차관의 일부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자본주의는 무역, 신용, 하청, 차관 등의 관계를 통해 태평양 전역에 퍼져 나갔지만, 일본의 투자는 대개 ‘일본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일본의 지원을 받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화인 자본 등 다른 아시아 국적의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칼리만탄의 원목개발 사업은 일본의 투자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경우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아시아 기업가들이 부패나 폭력 등을 저질렀을 때 일본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장인데,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자본의 초국적 연계성에 대한 논의는 일본 자본이 연계를 맺고 있는 여타 국가 자본의 행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따지는 논의와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과의 연계성은 중요하지만 한인 자본은 한인 자본이고, 한인 자본으로서 분석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이 연구의 시각이다.

인맥을 통해 확보한 정부와의 연줄이 그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교환은 그의 회고록 첫머리에서 일본 해군으로서의 전쟁체험을 통해 ‘무궁한 자원’을 가진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으며, “다시 인도네시아로 진출할 때 당시 관찰한 현지인의 후진성과 국민성에 대한 지식이 귀중한 소득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신교환 2007, 11). 그는 대학교에서 열대농학을 전공했으며, 전쟁 말기에 암본(Ambon)에서 농업시험장 서리로 근무했다고 한다. 암본 생활에 대한 그의 회고는 주로 만연한 식량부족 문제와 말라리아 발병 등 일본군 내의 열악한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교환은 종전 이후 1946년 6월 인천항을 통해 귀국했고, 고향인 울산에서 언양중학교와 울산농림고의 교사로 일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서울로 올라와 출판사를 운영하는 한편, 1960년 열대지방 사진과 함께 “해외로 눈을 돌리자”라는 글을 한국일보에 기고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게 된다. 정부 최고위층과의 인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민문제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보다 앞선 이민 송출국인 일본이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이민과에 제공”(신교환 2007, 56)하며 정부 실무자급과의 교분을 적극적으로 쌓아 나갔다.

신교환이 종전 이후 20년 만에 다시 동남아시아 땅을 밟는 데에는 1965년에 고향 선배에게 소개받은 신흥양행 김태성 사장과의 인연이 결정적이었다. 고철 사업으로 성공한 김태성은 보르네오 섬의 말레이시아 영토인 사라왁에서 벌채 허가를 얻어 원목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최계월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융자받으려고 애쓰고 있었다.⁸⁾ 김태성에게 정부에 청을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신교환은 본인

8) 최계월(권태하 1994b, 81)에 따르면 사라왁에서 원목사업을 하던 ‘김해성’(가명)이라는 사람은 “사이공을 드나들며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신교환(2007)은 김태성에 대해 충북 출신으로 만주를 거쳐 월남한 인물이라고만 설명한다. 또한 최

이 직접 사업 현장을 둘러보겠다고 제안하여 브루나이를 거쳐 사라왁의 현장을 탐방하며, 귀국한 이후 보고서를 정부와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신교환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정부 실력자를 만나 산업은행 총재에게의 소개장도 받았고, 총재를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대출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⁹⁾ 이후 신교환은 신흥양행 중역으로 입사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1968년 자카르타로 이주하는데, 가자마자 신흥양행이 부도나 버려서 독자적으로 원목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니목재주식회사의 현지 사업에는 신흥양행이 자카르타에 확보해 둔 중국계 사업가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동향인 중 일본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재일교포 사업가에게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여 일제 중장비를 대여해 오고, 역시 동향인인 동명목재의 중역을 통해 목재 수출선을 확보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동향인 네트워크가 십분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지 사업가들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거래처와의 문제가 생기면 일본어 실력과 도쿄제국대학 수학 경험을 활용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의 아들들에 의하면 1973년의 오일쇼크 때문에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으나 일본인을 주 고객으로 하여 사업을 다시 일으켰다고 하니(신교환 2007, 349) 그의 일본어 실력과 일본 경험이 아니었더라면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은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과의 거래는 코린도그룹이 초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남는 데

계월은 1964년에 ‘김해성’(가명)이 원목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최계월의 자금 대출이 어려워진 것처럼 묘사했는데, 신교환의 회고에 따르면 김태성의 사업은 별 문제 없이 굴러가다가 최계월이 대출에 성공한 이후인 1968년에 부도가 났다고 하는 등 두 회고록의 설명에는 차이가 있다.

- 9) 어느 실력자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나, 최계월(권태하 1994b, 81)에 의하면 ‘김해성’(가명)은 중앙정보부 차장보인 석정선을 통해 대출받은 것이라고 한다. 신교환의 회고에는 산업은행 총재 비서실장이 울산농림고 출신이기 때문에 인연이 닿았다는 이야기가 몇 차례 나온다.

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의 회고에 따르면, 한국 최고위층과의 인연은 오히려 코린도그룹의 초기 생존에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이었다(이상락 2000). 승은호 회장의 부친은 1951년에 목재기업인 동화기업을 창업했던 승상배씨로, 그는 원목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1970년에 ‘인니동화’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나 1975년 승상배 사장이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 때문에 탈세혐의로 구속되고 동화기업은 부도를 맞는다. 이때 인도네시아 현지 원목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승은호를 구원해 준 것은 일본 기업의 자금이었다. 승은호가 동화기업의 미국 지사에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일본인이 일본의 목재가공회사를 연결해 주었고 이 기업에서 130만 달러어치의 벌채장비 구입자금과 30만 달러의 운영 자금을 지원받아 싼값에 목재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기업이 코린도사로, 승은호는 당시의 코린도를 ‘망명기업’이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2. 발전과 위기

인도네시아 산림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한국 업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남부칼리만탄의 임지 개발을 시작으로 한 코데코의 사업은 번창했다. 산림개발과 관련해서는 더욱 많은 임지를 개발했으며 합판공장을 설립했고, 1980년대에는 직접 유정을 개발하며 원유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코데코의 원유사업은 1985년 유명 가수 정수라가 “마두라 앞 바다가 사랑을 하나 코리아 어서오라 손짓을 하며 석유를 내뿜으며 미소를 지었네 마두라 마두라”라는 가사의 노래 ‘마두라송’을 발표할 정도로 한국에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원유사업은 한때 최계월 회장 본인이 “아파트[를] 잡혀서 생활비 썼어”(이호 2012, 295)야 할 정도의 곤경에 빠지기도 했다. 최계월 본인이 이해한, 사업의 발전과 위

기를 불러온 주요 요인은 무엇이었던가?

산림개발사업의 성공은 “우리들 한국인의 피와 땀에 의해서 보르네오 남단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 것”이지만, 최계월 본인의 언급에 따르면 “우리 회사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준 고 수카르노 대통령, 현직 수하르토 두 대통령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의 배려와 착하고 성실한 현지인 종업원들의 애사심 또한 그 밑바탕의 큰 힘”이었다(권태하 1994a, 27). 양국 노동자들의 노고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의 배려’가 가장 큰 힘이였음을 인정한 셈이다. 수카르노의 ‘배려’에 대한 설명은 상술한 바 있으나, 1965-66년의 정치변동으로 수카르노의 정치적 실권이 없어진 이후에도 코데코는 인도네시아 정치 및 군부 엘리트와의 인맥 관리를 통해 사업의 확장에 도움을 얻었으며, 이러한 인맥은 원유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특히 중요했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두 대통령 외에 최계월의 회고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두 인물은 이담 할리드(Idham Chalid)와 베니 무르다니(Benny Moerdani)이다. 이담 할리드는 사업 초기에 남부칼리만탄을 임지로 정할 당시에 도움을 준 인물로 등장한다. 최계월은 수카르노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하스불라라는 사람의 친형인 이담 할리드 박사가 남부칼리만탄을 권유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권태하 1994b, 126-127). 남부는 “그 유명한 회교도 당수 이담 하리트[할리드] 박사의 절대적인 통치지역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전국민의 80 퍼센트가 넘는 회교 신자들을 움직이는 당수의 권한”(이호 1993, 74-75)이 엄청났다는 것이 최계월의 설명이다. 이담 할리드는 남부칼리만탄 출신의 이슬람계 인사이자 정치인으로 이슬람 단체인 엔우(NU: Nadhlatul Ulama)에서 활동해 왔으며, 1950년대 초반에는 이슬람 정당인 마슈미(Masyumi) 소속으로 정치를 시작했다가 엔우가 마슈미와 결별한 이후에는 엔우가 결성한 정당에서 활동했고, 1971년에 수

하르토가 단행한 야당 통합으로 이슬람 야당인 통합개발당(PPP)에 소속되었다. 그는 엔우 사무총장(Ketua Umum PBNU, 1956-1984)과 국민협의회 의장(Ketua MPR, 1971-1977) 등 민간과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사후 민족 영웅(pahlawan nasional)으로 추서되었고,¹⁰⁾ 최근에는 5,000루피아 지폐의 새로운 얼굴로 선정되는 등, 남부칼리만탄 지역을 절대적으로 통치하거나 국민의 80퍼센트를 움직이지는 못했을 지라도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이러한 경력에 대해 최계월은 ‘회교도 당수’ 내지는 ‘회교당 당수’(권태하 1994b, 126)라는 간단한 설명으로 요약한다. 이담 할리드가 남부칼리만탄에서의 임지 개발을 권유한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두 대통령 이외에 최계월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언급하는 현지 후원자이다.

최계월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후원자인 베니 무르다니는 수하르토 정권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정보장교 출신으로 1971년부터 3년간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총영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인도네시아 전군사령관과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두 사람은 베니 무르다니의 영사 시절 최계월이 한국 정부 인사를 만나고 싶다는 베니의 요청에 최계월이 “박종규 실장이나 이후락 실장에게 부탁해서 해결”(권태하 1994b, 170)해 주면서 가까워졌으며, “베니 무르다니의 동기에같은 따뜻한 정이 없었으면 오늘의 코데코가 있었을까”(권태하 1994b, 170)라고 회고될 정도로 그는 코데코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걸쳐 코데코의 원유개발이 성사되는 과정에 베니가 개입하여 특혜를 준 것은 회고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최계월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애초에 원유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

10) 이담 할리드의 이력에 대해서는 위키백과(“Idham Chalid”) 및 Ahmad(2010)를 참조했다.

으며,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의 성공을 바탕으로 브라질에 광대한 임지를 개발하여 대규모 ‘새마을 단지’ 내지는 ‘위성국가’를 건설하고 한국 농민들을 이주시킨다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갖고 있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최계월은 직접 아마존강 유역을 답사했으며, 아마존강에 오줌을 누 후 “아마존야! 니는 이자 내하고 한분 했빠릿다…니는 이자 고만 내 끼이다. 알긋나?”라고 소리치고 왔을 정도로(권태하 1994b, 142-143) 브라질 계획에 대한 그의 애착은 컸다.¹¹⁾ 그러나 1978년 제2차 오일쇼크를 맞아 원유가격이 폭등하면서 최계월은 브라질 사업을 미루고 인도네시아에서 원유 도입선을 확보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원유사업을 시작하게 된다(이호 1993). 정부의 요구로 갑자기 시작한 사업인 만큼 사전 조사가 부족하여 최계월은 자신이 베니 장군에게 무엇을 부탁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으며, 이러한 혼란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신군부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최계월의 회고에 등장하는 베니 무르다니는 최계월이 어떠한 부탁을 하든지 선선히 들어 주었으며, 한국 측에서 코데코가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원유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는 코데코가 아니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원유 확보 지시에 대해 최계월은 광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베니를 면담한 자리에서 ‘당시 호주와 계속적인 싸움을 전개하고 있던 동티모르’(이호 1993, 159)의 광구를 달라고 요구한다.¹²⁾ “남산만한 것 열댓 개만 사빠리면 우선 한국이 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는 최계월의 요구에 베니는 “석유가 나무에 매달려

11) 최계월에 따르면 브라질 산림개발 역시 박정희 정부와 손을 잡고 추진한 사업으로, “박 대통령이 개발자금으로 브라질에 예치시켜놓은 5백만 달러는 그 후 전두환 대통령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비밀을 여태 밝히지 않고 있다”(이호 1993, 213).

12)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동티모르를 휩쓴 전쟁은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점령군과 동티모르 독립군 사이의 전쟁이었다. 이호(2012, 189)는 당시의 동티모르에 대해 “포르투갈과 인도네시아의 오랜 식민 지배를 받아오면서 동서부로 갈라져 내전을 겪고 있었다”라고, 1993년작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한다.

있는 겁니까?”(이호 1993, 159)라고 반문하면서도 동티모르 석유 개발을 후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청와대는 광구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중단하고 당장 쓸 수 있는 원유를 수입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최계월은 다시 베니에게 원유 수입권을 요청했으나 인도네시아 측의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수하르토 대통령과 국영 석유회사 퍼르타미나(Pertamina)의 총재를 직접 면담하여 어렵게 원유를 수입했다고 하며, 베니 무르다니는 이 면담에도 동석하여 최계월을 도왔다(이호 1993, 170-173).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최계월은 정부가 원하는 원유 수입 물량을 확보해 주는 데까지만 관여하고 석유에 더 손대지 않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베니가 “유전개발 하십시오. 나는 최 회장님이 참여 안하시면 한국에 광구를 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광구를 주지 않겠다는 건 어떤 종류의 원유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이호 1993, 225)라며 최계월을 설득했다. 우여곡절 끝에 최계월이 신군부의 강요에 가까운 요청을 받고 서마두라의 광구에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메이저 회사들이 2,0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를 써내는 광구에 고작 350만 달러를 제시하여 밀려나자, 퍼르타미나가 독자 개발할 예정이었던 다른 광구를 500만 달러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준 것도 베니 무르다니였다.

그렇다면 베니 무르다니는 왜 이렇게까지 최계월과 코데코를 배려해 주었을까? 이에 대해 최계월은 회고록마다 조금씩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제시된 설명은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이 선진국 자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고위층 사이에 “개도국끼리 한번 이루어보자…한국이 한다면 인도네시아 법에 없는 것도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베니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같은 신생국가라는 점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진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이호 1993, 226-227). 한편 다른 회고

록에서는 베니가 “나는 형도 사랑하지만 한국을 또한 사랑합니다. 한국의 앞날을 봐서는 해외유전개발이 시급합니다”(권태하 1994b, 182)라며 유전개발을 부추긴 것으로 나와 있고,¹³⁾ 마지막 회고록에서는 베니가 박정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유전 확보를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설이 언급된다(이호 2012, 256). 시간이 지날수록 개도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박정희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의리가 베니의 동기로 제시되지만, 이 중에 ‘명분’이라고 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설명밖에 없는 것 같다.

코테코가 이처럼 베니 무르다니를 등에 업고 원유사업 분야로 확장할 수 있었다면, 코테코에너지가 안고 가야 할 위기는 무엇이었던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최계월이 코테코에너지의 원유사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계월의 회고록들은 모두 이 점을 역설하기 위해 집필된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정도이다. 광구 내의 KE-5 유정에서 천연가스를 꾸준히 생산해 왔기 때문에 실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코테코에너지가 한때 자금난에 빠졌던 것은 사실이고, 많은 기대를 걸었던 원유 생산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구체적 위기들의 원인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을까?

코테코에너지의 위기는 특정한 인물들과 함께 서술된다. 먼저 원유 생산의 실패는 전두환 대통령의 소개로 영입한 재미교포 허문석 박사라는 임원에게 돌려진다. 허문석은 텍사스 교민으로, 미국인 원유 기술자들을 직접 초빙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최계월은 처음에 미국 기술자들을 환영했다. 코테코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이 특히 긍지를 가져야 될 기 있어.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거느리게 됐다꾸는 거, 이기 보통일이 아니다. 해방 전이나 해방 후나 이날 여태

13) 권태하의 단행본에는 최계월은 베니에게 반말을, 베니는 최계월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이로 묘사되어 있으나, 앞서 나온 이호의 책에서는 서로 존댓말을 사용한다.

까지 우리가 단 한번이라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사람을 부러본 적 있던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우리 광구를 개발하게 되니까 그 큰 미국 기술자들을 부러움게 됐다 그 말이다. 나는 뭇보다도 이기 환장하게 좋다”(이호 1993, 259)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허문석은 코데코에너지의 기존 임원들과 심하게 대립하며, 그를 통한 미국인 기술자들의 인사 관리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미국인 기술자들은 한국인 기술자를 “중놈 다루듯이” 대했고 “겉에 가기만 해도 기피하는 고압적인 자세”(권태하 1994b, 164-165)를 보였으며, 기술의 보안에만 급급하여 유정을 파면서 허문석 이외의 한국인에게 보고서도 보여 주지 않았다. 이에 최계월 회장이 허문석에게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라고 부탁할 정도였으나 허문석과 미국인 기술자들은 “뭔가를 보여줘서 누런 것들 얼굴이 더 누렇게 되도록 해주겠다는 듯”(권태하 1994b, 165) ‘오버액션’을 하다가 과잉생산으로 당시 기대를 걸었던 KE-2공 제1유정의 생산량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실패와 코데코에너지 자금난의 배후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다른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최계월은 원치 않던 원유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면서 “국가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이호 1993, 183), “조국을 위한 열렬한 낭만”(이호 1993, 189) 등의 민족주의적 수사를 동원하며, “일본에서 보냈던 청년시절 그렇게도 갖고 싶어했던 내 조국이 아니었던가. 그 조국을 위해서 죽어 주자!”(권태하 1994b, 172)라는 취지에서 원유사업을 결심했다고 회고한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გი적이고 잔인한 면”(이호 1993, 181)이 있었다고 불평하면서도 그가 ‘시퍼렇고 절박한’ 눈빛으로 “북괴가 쳐들어오면 한 달 정도밖에 싸울 기름이 없어”(이호 2007, 169)라고 언급했다며, 안보 역시 하나의 이유로 내세운다. 박정희 사후 신군부의 전두

환 역시 원유 수급 문제는 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원유개발을 요구했다고 최계월은 회고한다. 게다가 “80년도라는 당시 상황에서는 부탁도 곧 명령이요 명령은 곧바로 강압적”(이호 1993, 234)이기 때문에 유전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민족에 대한 의리, 박정희 대통령과의 약속, 안보 위기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강압에 의한 시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두환 정권과 코데코의 관계는 계속 원만하지 못했다. 최계월은 신군부에 대해 ‘버릇없는 군인들’(권태하 1994b, 1991)이라고 생각했으며, 사업 초기에 전두환은 “거 돈 좀 적게 들고 먹을 수 있어야지”(이호 1993, 252)라고 하며 투자를 늦추어 코데코 자체 자금으로 원유개발을 시작하다가 1981년 말에야 사업자금의 80퍼센트를 정부 용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¹⁴⁾ 또한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른 이후에는 당시 석유개발공사 사장이었던 이원조가 마두라 유전을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에게 넘기려고 공작을 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이러한 제의는 실제로 들어왔고, 거부하자 용자지원률을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삭감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원조가 은행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코데코의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에 특별감사반을 투입하여 코데코그룹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이호 1993, 278-280; 이호 2012, 290-295). 허문석 박사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돌린 유정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 5공 정부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것도 KE-2공의 무리한 시추에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권태하 1994b, 166)이 언급된다. 결과적으로는 전두환 정부가 코데코에너지에 용자를 계속 지원해 주었기에 본격적인 자금난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코데코에너지의 1980년대는 권위주의 국가의 지원으로 지탱되는 자원개발사업이 떠안아야 할 위험성을 보여 준다.

14) 최계월은 원목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포함해 자신의 돈 4억 달러를 자바해의 바다 속에 빠뜨렸다고 회고한다(권태하 1994a).

코데코의 사례에서처럼 극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의 배려’는 다른 한국인 사업가들의 회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한다. 신교환(2007, 219-223)은 자신과 교분을 맺은 인도네시아 고관 3인을 소개하면서 베니 무르다니에 대해서는 “우리 진출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많은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으로, 한국 대사를 지낸 나수티온(Nasution)에 대해서는 이후 리아우(Riau)주 주지사 시절에 현대건설에서 일하던 둘째아들의 프로젝트에 도움을 준 인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원목개발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가 한국 관련 식품업으로 성공한 무궁화유통의 김우재 회장도 아굼 구멜라르(Agum Gumelar)를 비롯한 육군 공수부대장들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유력자 군인들과 찍은 사진을 회사 사무실마다 걸어 놓는 자신의 방식은 “중국인이 인도네시아 권력층과의 인연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김우재 2009, 161)되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군부 인맥의 덕택으로 건설업에 진출했을 때 사업이 자연스럽게 안정권으로 들어설 수 있었으며, 식당을 같이 운영하던 동업자와의 혈투에도 불구하고 잡음 없이 원하던 대로 문제가 마무리되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군부의 인맥을 활용하여 교민들의 신변 안전 및 교민 사업체의 안전 보장에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김우재 2009).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기록은 한국인 사업가들의 회고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한다. 신교환(2007)은 ‘인도네시아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장에서 인도네시아의 현대사와 주요 인물 등에 대해 상세히 해설하고 있지만 본인의 체험에서 비롯된 회고는 아니다. 그의 회고에서는 “암본은 기독교도가 더 많고 일찍 개화되어 주민들 수준이 꽤 높은 편”(신교환 2007, 26)이라거나, 이리안자야(Irian Jaya)는 “민

도가 낮고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다”(신교환 2007, 132)는 등 인도네시아 내부에서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나, 주로 중국계인, 자신이 주로 접촉한 사업가들 개개인과와 일화는 등장하지만 그 외의 특정한, 또는 일반적인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서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김우재(2009)의 회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동업자이자 경쟁 상대였던 중국계 사업가들에 대한 서술에 비해 그 외의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서술은 간략하다. 이는 군부 인사 등 고위 공직자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인들과 가까이 지낼 일이 별로 없었던 한국인 사업가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가들은 자신의 제한적인 일차적 경험을 통해, 또는 하부 관리직에 종사하는 다른 한국인들의 입을 빌려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교훈들을 종종 남겼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잘 모르는 한국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할 예정이 있는 한국인 사업가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이들의 묘사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딱지’가 있다면 그것은 원시성에 가까운 순수성, 그리고 그것에 결부된 게으름이다. 코데코의 최계월 회장은 “그 나라 국민을 부려먹을 때는 부려먹는 공부를 해야 돼요”(이호 1993, 302)라는 코데코 임원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부려먹는 공부’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실무자급보다는 권력의 실세만을 주로 상대했다는 그의 인간관계가 갖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코데코가 산림개발을 시작할 당시 현지인 채용비율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받았기에 199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남부칼리만탄 현지인 노동자보다는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원목개발 기술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주로 채용했다는 사실(이호 1993, 89; Tsing 2008)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썩(Tsing 2008)은 권태하(1994b)에 묘사된 현지인

들에 대한 서술을 인용하며 코데코가 원시성이라는 고정 관념 외에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틀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비판하는데, 여기에 인용된 다음의 일화들은 사실상 최계월의 모든 회고록에 걸쳐 현지인 노동자들에 대해 다루는 유일한 부분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용감했고 굶은 일을 피하려고 하거나 꾀를 부리는 편은 아니었다. 다만 흠이라면 게으른 편이라는 것이다”(권태하 1994b, 125). 현지인 직원들의 “게으른 버릇을 고쳐주고자” 회사에서는 “야 임마들아, 츠팻츠팻 막간 하고 츠팻츠팻 커르자 히여!”¹⁵⁾(권태하 1994b, 128)라고 소리지르며 ‘바하사 코데코’(Bahasa Kodeco)를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몇 가지의 기법을 도입한다. 첫째는 트레일러 기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이 때문에 트레일러가 과속을 일삼다 보니 뱀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참혹하게 사망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권태하 1994b, 121-122). 두번째는 월급제를 일급제로 전환하고 매점을 개설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보르네오 오지에 돈이란 쓰일 데가 없었고 또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원주민들에게는 돈에 대한 가치마저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권태하 1994b, 129) 회사가 돈이 아닌 쌀로 급료를 지불하자, 다음날 현지인 직원들이 모두 결근을 해 버렸다. 이들은 결근의 이유를 쌀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최계월은 “참으로 순하고 착한 사람들”(권태하 1994b, 130)이라며 이들의 구매의욕과 근무의욕을 함께 북돋우기 위해 일급제 전환과 매점 개설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쩡(Tsing 2008)은 당시 보르네오에 돈이 쓰일 데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상황은 명백한 조업 중단인데도 코데코가 이것을 현지인들의 게으름과 순수성, 원시성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한다.¹⁶⁾

15) ‘츠팻츠팻’(cepat-cepat)은 ‘빨리빨리’, ‘막간’(makan)은 ‘먹다’, ‘커르자’(kerja)는 ‘일하다’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이며 ‘히여’는 충청도 사투리이다.

코데코의 두번째 기법이 그런대로 효과를 발휘하여 원목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해피엔딩’을 맞았다면(권태하 1994b, 131), 현지인들의 순수성과 원시성에 대한 믿음은 한국계 회사에게 커다란 골칫거리를 안겨주기도 했다. 코데코가 남부칼리만탄에 매점을 개설한 지 20년도 더 지났을 무렵, 코린도그룹은 이리안자야에 합판공장을 설립한다. 코린도의 승은호 회장 이하 직원들을 인터뷰하여 기사를 쓴 이상락(2000)은 이리안자야에 대해 “이곳은 문명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아 ‘어떤 곳에 출근한다’는 개념이 없다. 월급을 받은 다음날이면 상당수 직공이 결근해버린다. 돈이 생겼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논 다음에, 돈이 떨어지면 나가서 일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지나친 순수성은 2,000여 명의 현지 직원 대부분을 파푸아 현지인이 아닌 자바인이나 칼리만탄인 등 다른 사업장에서 훈련 받은 외지인으로 고용하여(이상락 2007; 엄은희 2014)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더 있었다. 공장을 설립한 후 ‘그곳 독립군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회사로 찾아와서 20억 달러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20억 달러는 너무 많으니 200달러로 깎아달라니까 두말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라는 승은호 회장의 회고에 대해 작가는 “그만큼 돈에 대한 인식도 수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내린다(이상락 2000).

이 기사가 나간 다음 달에 한국인 임원을 포함한 10여 명의 코린도 직원이 윌렘 온데(Willem Onde)가 이끄는 일단의 자유파푸아운동 게릴라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게릴라들이 요구한 몸값이 20억 달러였다고 하니(이상락 2007) 기사가 정확하다면 그렇게까지 수 개념이 부족

16) 일급제는 장기 파업을 막기 위한 노동통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은 뒤에 파업에 돌입하면 상당한 기간 버틸 수 있지만, 일급제에선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2000년에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현지 기업에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도 급세 경제적 곤경을 겪고 조업에 복귀해야만 했다(전제성 2002).

하지는 않았던 셈이다.¹⁷⁾ 그러나 ‘순수한 게릴라’라는 고정된 이미지는 납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납치 피해를 직접 입은 이현 본부장은 온데와 “스스럼없이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의 부하직원들을 납치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에 직접 대화를 시도하려고 그들의 아지트로 걸어들어갔다가 인질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그는 인질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너희를 도와온 사람들인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며 소리를 질러가며 따지고, “야 임마…20억달러를 달라고 하면 그게 되는 소리냐. 그리고 몸값을 달라고 하면 너희들은 테러리스트밖에 안 된다. 그러니 내일 기자들 만나거든…대통령 면담만 조건으로 내걸어라”라고 “온데를 얹혀놓고 야단을 쳤다.” 그러자 “순진한 온데는 다음날 기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노라고 이현 본부장에게 착실히 보고”했다는 것이다. 결국 온데와 그의 동지들은 와히드 대통령을 면담하는 데 성공했고, 온데와 이현은 그 이후에도 교류를 계속했다. 이 이야기는 ‘순진한 온데’가 이현을 만나고 돌아가다가 인도네시아 육군 특수부대(Kopassus)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의해 살해되고,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고 남은 시신이 발견돼 그의 누나가 수습”하는 것으로 결말을 맞는다(이상락 2007).¹⁸⁾

17) 그러나 인도네시아 신문기사(Kompas 2001)에는 온데가 100만 달러, ICG(2007)에는 200만 달러를 몸값으로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상락(2007)에 제시된 20억 달러라는 금액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Kompas 2001).

18)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의 보고서(Kontras 2004)에 따르면 온데와 이현의 만남은 2001년 9월 10일 오전 10시경에 있었던 일이다. 또한 온데의 사체는 두어 달 후가 아닌 4일 후에 발견되었으며, 물고기가 뜯어먹은 상처가 아니라 타박상과 총상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9월 10일 오전과 사체 발견 시점 사이에 온데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승은호 회장을 인터뷰한 이상락(2007)의 기사에는 온데가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다가 갑자기 숲 속에서 나타난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 사살됐다”라고 살해 시간과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 흥미롭다. 이현 부사장을 오전 10시에 만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달릴 수는 없으므로 이 또한 ‘보르네오의 악어’인 것으로 보인다. 군대가 보호해야 할 시설로 여겨지지 않는 코린도 사업장에 군부대가 있는 등 코린도와 군부의 관계는 밀접했던 것으로 보이지만(Kontras 2004), 코린도는 또한 온데에게 정기적으로 재정 후원을 해주기도 했다(ICG 2007). 온데 역시 자유파푸아운동 게릴라이면서도 코린도 인질사건 이전에는

현지인 노동자들에 대한 두 번째 이미지는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현지인들과의 부드러운 관계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잘 하는 요령 중의 하나이다. 현지의 사업가나 고위층이 “주위 사람을 깔보다가 생긴 보복성 사고”(김우재 2009, 229)로 인해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복성 ‘사고’를 피하려면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원한관계에 이를 만큼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김우재 2009, 230). 또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것 역시 사업 성공의 열쇠로서,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 이유로 한국인 관리자가 지시를 알아듣지 못하는 현지인의 뺨을 때렸다가 패싸움으로 변져 “정글에서 맞아 죽을 뻔 했던 해프닝”(김우재 2009, 245)이 제시된다. 코린도 직원들을 인터뷰한 이상락(2007) 역시 “인도네시아의 오지에서 맨몸으로 맞부딪치며 겪어낸 ‘현지화’ 과정의 체험담”의 하나로 “현지 고용인 한 명을 해고했다가 톱으로 뒷목을 ‘썰리는’ 테러를 당한 인사담당 직원의 아찔한 경험담”을 소개한다. 착하고 순수한 현지인 노동자들에게 폭력 행사, 부당 해고 등의 행위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한국인 사업가들이 현지화 과정에서 얻은 직간접적 경험에서 체득한 보복의 공포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원목사업에는 밀림과의 싸움이 필연적이다. 회고록에 등장하는 거머리, 전갈, 자라, 악어, 뱀, 표범, 호랑이, 기생목 나뭇가지 등 인도네시아의 밀림에서 만난 자연의 저항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낳을지언정 결국은 극복된다. 김우재(2009)는 원목사업에 종사하던 당시 터진 곰쓸개를 먹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한국인의 사례를 들면서, 이처럼 곰의 쓸개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약효가 뛰어나다고 소개한다. 식성을 맞춰서 키우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요즘도 생포된 곰 새끼를 주문하면 배달이 가능”(김우재 2009, 97)하므로 요령껏 곰을 키워서 쓸개를 채

머라우케에 들 때면 육군 특수부대 기지를 숙소로 쓰는 등 군부와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ICG 2007).

취하면 된다는 것이다. 원시적인 밀림과의 싸움은 힘든 만큼 한국인 사업가들에게 기회가 된다.¹⁹⁾ 자연과 인간의 저항을 요령껏 관리하여 문명을 유입시키는 것은 한국인 사업가들에게 하나의 사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²⁰⁾

4. 유산

1968년 코데코를 시작으로 한국 업체 7곳이 인도네시아에서 산림개발을 시작했지만 현재 산림 분야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는 코린도 뿐이다(엄은희 2014). 그러나 원목사업으로 출발한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양국에 수많은 유산을 남겼다. 코린도와 코데코는 합판, 제지 등 관련업종뿐만 아니라 원유 등의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남겼다. 코린도 승은호 회장의 동생인 승명호 동화기업 사장은 목재를 이용한 인테리어 산업으로 한국에서 크게 성공했으며, 형제가 함께 한국 목재기업을 인수하기도 했다(한명규 2003). 무궁화의 김우재 사장처럼 애초에 원목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가 다른 분야로 업종을 변경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다. 초기 한인기업가들의 2세 역시 인도네시아에 정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신교환 2007; 김우재 2009).

산림개발을 위해 조성한 기업형 타운에도 초기 한국계 기업의 자취는 남아 있다. 코린도의 칼리만탄 사업장 주변에는 ‘잘란 코린도’(Jalan Korindo) 즉 ‘코린도길’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으며(엄은희 2014), 코데코가 원목사업을 위해 개발한 읍내였던 남부칼리만탄의 바투리친

19) 1963년에 최계월이 처음 임지를 조사하러 갔을 때에도 이미 비교적 입지조건이 양호한 곳은 네덜란드나 일본이 벌목을 끝낸 상태였고, “남은 지역은 대개가 개발조건이 열악한 오지”(권태하 1994b, 100)였다.

20) 최계월은 “원시림은 어디를 가나 그 지역의 저항이 있었다. 문명의 유입을 원주민들이 극구 막고 있다는 것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셈이다.”라고 회고하기도 한다(이호 2012, 131).

(Batulicin)은 현재 남부칼리만탄 타나뭇부군(Kabupaten Tanah Bumbu)의 군청 소재지로서 이곳을 관통하는 도로의 명칭이 최계월의 이름을 딴 ‘잘란 초이’(Jalan Choi)이다(김문환 2013). 바투리친의 개발은 최계월이 회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자랑거리이다. 현지의 원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주택을 지어 주었으며, 타지에서 찾아온 코데코의 노동자들을 위해 학교, 병원, 이슬람 사원 등을 건설했다(이호 1993). 한국에서 초빙해 온 의사는 ‘신’으로 추앙받았을 정도로(권태하 1994b) 바투리친의 건설은 한편으로는 문명의 유입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코데코의 사회 환원이자 최계월의 인도네시아 사랑의 산 증거로서 제시된다. 심지어 코데코의 후원으로 바투리친을 탐방한 한국인 방문자들은 “한국사람이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백성을 제멋대로 부리고 매일 아침 남의 나라 땅에 태극기 짝 올리고”(권태하 1994b, 223), “바투리친, 거기는 총독부였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아마도 그랬을 거야”(권태하 1994b, 221), “지배받던 민족이 지배자가 되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으랴!”(권태하 1994b, 228)라는 회고를 남기는 등 바투리친을 한국의 식민지로 인식하기도 한다. 권태하(1994b, 230)는 이에 대해 “바투리친, 그 곳은…어느 분이 쓰셨듯이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오직 한국인이 이민족과 어울려 따듯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러기에 그 곳에서는 한국의 한국인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하며 넘어가지만, 코데코가 남부칼리만탄에 “5만 명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다”(한대희 1992), “미스터 초이의 병사들이 5만 명에 이른다”, “남방개발이 만의 하나라도 칼리만탄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견잡을 수 없는 국민 쿠데타가 발생할지도 모른다”(이호 1993, 91)라는 등 바투리친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계월의 기여이며,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고마워하고 있다는 주장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1998년 수하르토의 하야 이후 민주화된 정국에서 원목의 밀수가 유행하자 칼리만탄과 파푸아의 목재산업은 큰 타격을 받는다(김문환 2013, 192-193). 또한 코데코의 목재부문은 원유사업, 컨테이너사업 등 타 부문으로의 확장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투여하는 등 여러 원인이 겹쳐 경영난에 빠진다. 마두라유전으로 원유사업을 개척한 코데코에너지 역시 최계월 회장이 “국회만 열리면 회사하고 나를 두드려패는 기 단골메뉴야!”(이호 2012, 76)라고 토로할 정도로 한국의 국회와 언론 등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논란에 시달리며 정치자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기까지 했으며, 1990년대 초반에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는 용자를 상환하느라 자금난에 시달렸다. 코데코에너지의 서마두라 광구 운영권은 현재 퍼르타미나가 회수해 간 상태이며, 일부 지분은 여전히 코데코에너지가 보유하고 있으나 그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생산량 역시 꾸준히 감소해 왔다(Antaranews 2011; Amahl 2013). 양국의 민주화라는 변화된 정치적 환경이 코데코의 사업에는 악재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데코의 유산에는 최계월의 회고에서 바투리친의 군소재지 승격이나 서마두라 광구의 개발만큼이나 중요시되는 다른 요소 역시 들어 있으니, 그것은 ‘코리언의 아이들’이다. 최계월은 산림개발을 시작할 당시 한국인 직원들이 “필시 고독을 달래기 위해 현지 처녀들과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이호 1993, 26). 현지에 진출한 사업체의 직원이 현지인 여성과 성관계나 그 이상의 관계를 갖는 것은 딱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한국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신교환(2007)의 회고에도 자카르타에서 한인회의 살림을 꾸려나갈 당시 한국인 2세를 데려와 양육비를 요구하는 현지인 여성들 때문에 겪은 고충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최계월에게 한국인 2세의 출생은 ‘문제’나 ‘애로사항’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원주민 처녀들을 매혹시키는 것도 한국 사내

의 재주고 능력이다”(이호 1993, 26). 당시 코데코의 성문화에 대해 한 임원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남자들이 몇 년씩 산골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사내 구실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때부터 시커먼 것도 다 희게 보이고, 눈이 찌그러져도 이뻐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생활하던 도중에 술이나 얼큰하게 먹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남이 데리고 있는 식모도 가끔 불려다가 몸도 풀고… 말하자면 공동 공창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하하”(이호 1993, 110). 그 ‘식모’ 중 한 명이 임신을 했는데 워낙 여러 직원과 관계를 맺은 탓에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 가장 빈번하게 ‘몸을 풀었던’ 김씨, 하씨, 송씨의 이름을 따서 아이에게 ‘김하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일화가 뒤따른다. 또한 ‘식모들’이 한국인 남성 직원들의 ‘물건 크기’와 발기 지속 시간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어 나중에 뒤따라온 한국인 부인들끼리 싸움이 날 때 서로 상대방 남편의 성관계 능력을 들먹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같은 회고에 따르면, “여기 있는 여자들은 한국인들의 후손을 받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임신을 해도 감춰 버려요. 피부가 좀 하얗고 머리가 좋다는 걸 아는 거죠”(이호 1993, 113).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한국인(코리언) 아이를 아버지가 한국으로 데려가거나, 현지의 가정을 택하여 정착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비를 지급할 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최계월 회장은 현지 여성들이 “그만큼 한국인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으니 절대 아기를 내놓지 않고 자신이 [엄마가] 키우려 할 것”(이호 1993, 27)이라고 단정한다. 대신 그는 회사가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은 우수하다. 우수한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인도네시아의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 때 그 아이는 아버지의 나라 코리아를 사랑하게 될 것이 아닌가!”(이호 1993, 28) 코데코는

총 19명의 한국인 2세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불했으며 성장한 이후에도 농장을 마련해 주거나 코데코에 채용하는 등 뒷바라지를 계속했다(권태하 1994b).

IV. 맺음말

해외투자의 성과는 주로 수치로 환산되어 표현되고 평가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개한 회고록들은 그러한 물질적 성과 이면에 있는 정치적, 사회적 관계망과 투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점 역시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오명석 2014),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일반(전제성·유완또 2013)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학자들의 시각에 의해 한 차례 걸러진 것이라면, 회고록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을 선구자적으로 수행한 기업가들이 자신의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를 포함한 그들의 관점 전반, 그리고 다른 자료로 알아내기 힘든 투자 이면의 정치적, 사회적 관계들을 비교적 여과 없이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이다.

대한민국 해외투자 선구자들의 궤적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특징은 일본과의 연계성이었다. 다국적 기업은 아닐지라도 기업가 개개인이 가진 초국가적 연계(transnational linkages)가 투자 과정, 특히 출발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일본 수학 경력, 일본인 및 재일교포와의 인맥, 일본어 능력 등이 현지 진출 과정에서 매우 긴요하게 활용되었다. 이처럼 일본과의 연계성이 중요한 사업 자원으로 활용되었다면, 결국 한인 해외투자의 선구적 업적은 일본이라는 도약대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동아시아적 연계성의 시각으로 조명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윤의 확보가 아니라 ‘조국의 영광’이 투자 동기와 사업 목적으로서 강조된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생활하여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가장 취약하며 “해 외교포라는 이유 때문에 별 모락을 다 받은”(권태하 1994b, 180) 최계월은 사업 시작과 확장 국면에서 작용한 자신의 민족주의적 동기와 한국인의 우수성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다. 한국인의 우수성에 대한 주장은 인종주의적 관점과 결부되어 있는데, 최계월의 인종주의적 시각은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전 사업을 위해 초빙한 허문석 박사 휘하 미국인 기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코 큰’ 미국인 기술자들을 ‘부리는’ 것이 ‘환장하게’ 좋다는 최계월의 진술,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을 관리하면서 빚어진 여러 문제를 미국인 기술자들의 인종주의적 태도 탓으로 돌리는 그의 회고에서는 백인에 대한 적대와 인종주의적 수사법을 활용하면서 일본이 민족주의적 헤게모니를 갖는 아시아주의를 꿈꾸었던 19세기 후반 일본 아시아주의자들의 인식(박노자 2005)이 엿보인다. 최계월은 1960년대 초반 일본에 창립했던 ‘홍아무역’을 버리고 서울로 건너왔지만, “서양의 인종주의 수사를 교묘하게 아시아주의 담론에 전유”(박노자 2005, 203)한 ‘홍아회’의 사상만큼은 버리지 않고 가져온 셈이다. ‘서이리안 대추장’들에게 백인들의 네덜란드가 아닌 피부색이 같은 인도네시아를 택하라고 권유했다는 회고에서도 대동아공영권 시절의 인종주의적 아시아주의가 선연하게 묻어난다.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의 관계에 대한 여러 진술에서도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혼합한, 대동아공영권의 저변에 깔린 아시아주의 사상의 영향이 엿보인다. 풍부한 자원과 게으른 현지인을 키워드로 삼는 현지 및 현지인 인식은 최계월뿐만 아니라 다른 한인기업가들의 회고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한국도 저발전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던

시기였던 해외투자 초창기부터, 더구나 한국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도네시아와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시기(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2013, 20-47)에, 본국의 경제성장이나 국제적 지위 상승이라는 ‘성과에 기초한’ 선민의식이 아니라 본원적 우월감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가들의 의식은 성장기의 학교 교육에서, 또는 일본군 장교로서 받은 훈련에서 습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기업의 투자 및 기업타운 개발을 문명의 유입으로 해석하고, 그곳에서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인을 ‘거느리고’ 있다는 시각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해 온 오랜 논리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베니 무르다니 장군이 피력했다는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개도국 연대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망스런 시각이다.

한인기업가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가로 성공하고 명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와 현지인에 대한 진술은 적은 분량이고, ‘보르네오의 악어’라 스스로 표현한 경우처럼 파편적인 경험을 가상적으로 조합한 경우 또는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일화들에 그려지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착하고 순수하지만 원시적이어서 해고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폭력 등 관리자의 일방적인 조치가 있을 때에는 잔혹하게 보복할 수도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현지 노동자들을 존중해야 할 이유마저도 그들의 원시성에서 찾는 셈이다. 인도네시아인의 순수성과 원시성이라는 일견 단순하고 편리한 정형화는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에 발생한 코린도 직원 납치사건에 대한 기사에서도 드러나며, 이러한 정형화로 인해 기업과 직원들이 치른 대가도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한국인들이 고용한 현지인 가사노동자들을 ‘공동 공창’이라고 칭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우수한 한국인의 유전자를 원했으며, 이렇게 태어난 ‘코리언의 아이들’에게 양육비와 일자리를 제공하며 회사가 아

버지의 역할을 다 했다는 코데코의 일화는 순혈주의를 강조하며 ‘혼혈아’를 천시해 온 서양의 인종주의 논리(Anderson 2006)에도 포섭되지 않는, 기발하게 변형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가부장제 논리의 혼합이다. 한국인의 우수한 씨를 퍼뜨림으로써 인도네시아에 기여했다는 한국식 가부장제의 응용 논리는 위에서 언급한 유사 식민지배 논리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바깥의 인도네시아에 내놓고 자랑했다가는 그 파급 효과를 감히 내다볼 수 없는 성질의 이야기이다. 일찍이 1930년대에 네덜란드 역사학자(J. C. van Leur)가 식민사관의 문제를 ‘요새의 성벽’, ‘교역관의 높은 화랑’, ‘함선의 갑판’ 위에서 내려다 본 역사기술의 문제였다고 비판했는데(Smail 1961), 이러한 비판은 우리 해외투자 선구자들의 현지에 관한 기술에도 해당된다. 즉 스스로 건설한 ‘기업 타운의 국기계양대’에서 내려다본 현지 인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료가 독해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사업관계 역시 해외투자 선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정치적 연줄의 확보와 동원이 선구자들의 투자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선구자들이 택한 자원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사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었고, 국영기업이나 한국 본사를 둔 대기업의 자원개발 투자가 아니라 모험적인 개인 사업가들이었기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힘 있는 공직자들의 후원 확보가 절실하였다. 더구나 사업 시작과 확장 과정의 양국 정치체제가 권위주의 체제였기에 정치적 후원은 더욱 긴요하였을 것이다. 최계월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정치적 사업관계자 목록에는 김종필, 이후락, 박종규, 베니 무르다니 장군을 비롯하여 박정희, 전두환, 수카르노 대통령까지 포함되어 있다. 각별히 자주 언급되는 이는 베니 장군이었고, 그런 점에서 수하르토 체제에서 사업할 때 결정적이었던 “수하르토 면허”(Duncan and McLeod 2007, 76-78) 뿐만 아니라 그보다 하급이지만 ‘베니 무르다니 면허’ 역시 결

정적이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런데 정치적 사업관계는 기업 활동에 기회뿐만 아니라 위기도 가져다주었다. 이를테면 코린도의 경우 투자 직후에 바로 고난을 겪었고, 코데코의 경우 박정희 정권의 몰락 이후 전두환 정권의 특수한 요구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아예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다. “최 회장이 정치적인 운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이호 1993, 320)라는 코데코 임원의 회고를 정당히 풀이하자면 체제변동으로 정치적 운이 다한 것이었다.

역사적 특수성과 편향성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 선구자들의 경험은 각종 저술, 인터뷰, 한인회 활동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후속세대 한인투자자들의 의식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를 거치며 대거 진출한 한인투자자들이 선구적 세대와 단절적인 새로운 세대처럼 여겨지지만, 의식세계의 측면에서 연속성도 찾아볼 수 있다. 선구자들의 별목사업은 원시림의 자연 상태와 혹독한 대결을 거쳐야 했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하는 타운 건설을 수반해야 했고, 시민사회단체의 개입이 부재한 환경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강력한 애착과 자부심, 문명화 혹은 근대화의 기수라는 의식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국가와 기업만 존재하고 사회는 결여된 ‘2섹터’ 시각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오늘날의 한인투자자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된다(전제성·유완 또 2013, 2장 2절). 그러므로 한인기업가들의 계급형성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사업 이익과 현지 사회에 대한 ‘전투적 계급의식’의 경험적 구성물로서 본인들 고유의 경험 외에 투자 선구자들의 전승된 경험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투 고 일: 2017년 01월 25일

심사완료일: 2017년 02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02월 17일

참고문헌

- 권태하. 1994a.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상권. 서울: 중앙일보사.
- 권태하. 1994b.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하권. 서울: 중앙일보사.
- 김문환. 2013.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 적도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흔』. 자카르타: 자카르타경제일보사.
- 김상. 2002. “동남아 국가의 화인정책과 화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미국상 비교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우재. 2009. 『홍사 회고록: 인도네시아에 핀 무궁화』. 서울: 현문미디어.
- 박노자. 2005. 『우승열패의 신화』. 서울: 한겨레신문사.
- 스콧, 제임스. 2014. 『우리는 모두 아나키스트다』. 서울: 여름언덕.
- 신교환. 2007. 『젊은이여, 세계로 웅비하라』. 서울: 해누리.
- 엄은희. 2014. “산림개발 기업과 지역사회 공존의 과제: 인도네시아 코린도의 사례.” 오명석 엮음. 『말레이세계로 간 한국 기업들: 삼성, 미원, 삼익, 코린도의 동남아 현지화 전략』, pp. 171-232. 서울: 놀민.
- 오명석 엮음. 2014. 『말레이세계로 간 한국 기업들: 삼성, 미원, 삼익, 코린도의 동남아 현지화 전략』, 서울: 놀민.
- 이상락. 2000. “이 사람의 삶: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나무사업 외길 30년에 인도네시아 함판왕 되다.” 『신동아』 12월호.
- 이상락. 2007. “소설가 이상락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요절복통 여행기: ‘돼지 두 마리 주면 처녀 하나 줄게’.” 『신동아』 12월호.
- 이호. 1993. 『낭만의 제국』. 서울: 우석.
- 이호. 2012. 『나는 아스팔트 깔린 길은 가지 않는다』. 서울: 올림. 알라딘 ebook.
- 전제성. 2002.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노동조합 자유화와 ‘자본의 반격’.” 『한국정치연구』 11(2): 181-199.

- 전제성. 2010. “인도네시아의 국가와 외국인자본 관계의 변화: 민주화 이후 국제기업인회의소(IBC)의 형성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0(1): 259-298.
- 전제성. 2014.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노사관계의 현지화: 미원 인도네시아의 사례.” 오명석 엮음. 『말레이세계로 간 한국 기업들: 삼성, 미원, 삼익, 코린도의 동남아 현지화 전략』. pp.75-128. 서울: 눌민.
- 전제성 · 유완또. 2013. 『인도네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인도네시아: 투자와 이주를 통한 문화교류』. 서울: 이매진.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2013.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40년사: 40년의 우정을 넘어 영원한 미래 동반자로』. 부산: 이룸.
- 최예나. 2015. “‘인니 칼리만탄의 왕’ 남방개발 최계월 창업주 별세.” 『동아일보』 (11월 30일). <http://news.donga.com/3/all/20151130/75089329/1> (검색일: 2017.01.05.).
- 카츠넬슨, 이라. 1986. “노동계급의 형성: 사회의 구조와 비교.” 『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느티나무.
- 한대희. 1986. 『재벌인간학』. 서울: 해냄출판사.
- 한대희. 1992. 『역사는 꿈꾸는 자가 만든다』. 서울: 명지사.
- 한명규. 2003. 『(50달러로 억만장자가 된) 한상』. 서울: 생각의나무.
- Ahmad Fahir. 2010. "Kiai Idham Chalid, Pemimpin Besar dari Amuntai." *Antaranews* (7월 11일). <http://www.antaranews.com/berita/211241/kiai-idham-chalid-pemimpin-besar-dari-amuntai> (검색일: 2017.01.05.).
- Amahl S. Azwar. 2013. "PHE West Madura Offshore Block to Miss its 2013 Target." *The Jakarta Post*. September 28.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3/09/28/phe-west-madura-offshore-block-miss-its-2013-target.html> (검색일: 2017.01.05.).
- Anderson, Benedict R. O’G.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3r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Verso.

Antaranews. 2011. "Pertamina, Kodeco Sign Extension Contract for West Madura." (5월 5일). <http://www.antaranews.com/en/news/71081/pertamina-kodeco-sign-extension-contract-for-west-madura> (검색일: 2017.01.05.).

Chua, Christian. 2008. *Chinese Big Business in Indonesia: The State of Capital*.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Duncan, Ron. and Ross H. McLeod. 2007. "The State and the Market in Democratic Indonesia." Ross H. McLeod and Andrew MacIntyre. eds. *Indonesia: Democracy and the Promise of Good Governance*.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7. "Indonesian Papua: A Local Perspective on the Conflict." Asia Briefing No. 66.

"Idham Chalid." https://id.wikipedia.org/wiki/Idham_Chalik (검색일: 2017.01.05.).

Kompas. 2001. "OPM Ancam Eksekusi Sandera." (1월 27일). <https://www.library.ohiou.edu/indopubs/2001/01/26/0043.html> (검색일: 2017.01.05.).

Kontras (Komisi untuk Orang Hilang dan Korban Tindak Kekerasan). 2004. "Laporan Penelitian Bisnis Militer di Boven Digoel Papua."

Lee, You-Il. 1997. "Korean Direct Investment in Indonesia in the 1990s: Dynamics and Contradictions." *Asian Perspective* 21(3): 173-210.

Rudolph, Lloyd I. and Susanne Hoeber Rudolph. 2003. "Engaging Subjective Knowledge: How Amar Singh's Diary Narratives of and by the Self Explain Identity Formation." *Perspectives on Politics* 1(4): 681-694.

Smail, John. 1961. "On the Possibility of an Autonomous History of Modern Southeast A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2(2): 72-102.

- Tsing, Anna. 2008. "Contingent Commodities: Mobilizing Labor in and beyond Southeast Asian Forests." Joseph Nevins, ed. *Taking Southeast Asia to Market: Commodities, Nature, and People in the Neoliberal Age*. pp.27-42.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Abstract

Transnational Linkages and Consciousness of
First-Generation Korean Overseas Investors:
Reading Memoirs of Korean Businessmen in Indonesia

SUH Jiwo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JEON Je Seo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We examine memoirs of early Korean entrepreneurs in Indonesia, who were first-generation Korean overseas investors, to look into their transnational linkages and consciousness. Our reading centers on the texts, including ghostwritten books and articles, left by Choi Gye Wol of Kodeco (Korean Development Company), while text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ree Korean entrepreneurs who had engaged in timber business in Indonesia from the 1960s or the 1970s are juxtaposed with Choi's memoirs for the purpose of finding similarities of their experiences. The texts reveal that their preexisting connections with Japan, as well as political sponsorship from Korea and/or Indonesia, enabled the early overseas entrepreneurs from Korea to make inroads into Indonesia. In many cases, these connections made crucial impacts on the later course of their businesses. In addition, their views on Indonesia, Indonesians, and their own legacies such as industrial towns and *anak*

keterunan Korea, show curious mixtures of nationalism, Asianism, racism, and patriarchy.

Keywords: Choi Gye Wol, Kodeco, timber business, foreign investment, Indonesia